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7. 17 ~ 2022. 8. 6 제268호

## 국회도서관, 성혁명 부추기는 팩트북 ‘젠더평등’ 발간 “물의”

동성애와 성전환자 권익을 위해 가정해체를 주장하는 유럽연합과 유엔 등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소개한 연구 자료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은 지난 5월 말 유엔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젠더평등 추진 과정을 담은 팩트북 ‘젠더평등’을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젠더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인간 중심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며 “국내외 젠더평등 현황과 정책 동향, 관련 법령, 젠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 현승혁

정리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과 유럽연합 산하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전환을 비롯 성소수자(LGBT)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성윤리 회복과 혼인제도 가정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크레도는 최근 “유엔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 가정해체에 앞장서고 있다.”며 젠더기획특집 8호를 통해 소개했다. 크레도에 따르면,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1989년 이후 유엔 초창기인 1948년에 수립한 세계인권선언문의 기본 정신을 포기, 남녀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고 결혼 및 가족질서를 파괴하며 성도덕을 없애버리며 낙태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선봉에 선 기관으로 전락했다. 유럽연합 역시 2000년에 발표한 기본권헌장은 결혼 제도에서 남녀를 언급하지 않으며,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을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되려면 젠

더평등 즉 성평등 방안, 특히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조치들을 채택할 것과 혐오범죄법 및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의 경우,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안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사회주의자로 유럽 각료이사회 멤버인 도리스 스텝프는 여성을 수동적이고 열등한 존재인 ‘어머니’로 묘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스코틀랜드 국가보건서비스는 동성혼 부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엄마’와 ‘아빠’라는 호칭을 금지했다. 유엔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도서관이 국가 예산을 투입해 패륜적인 성평등을 부추기는 연구결과를 버젓이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GNPNEWS]



### Interview



전철한 선교사(한국외국인선교회)

## 부르심 따라 순종, 이주민의 친구 선교사 되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나름 정해진 과정을 통해 훈련을 거쳐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철한 선교사의 선교사 준비는 한국의 격동기에

누님 집에서, 군대에서, 배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국내 체류 외 국인이 2020년 기준 200

만 명이 넘는 지금,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외국인선교회’ 전철한 선교사를 만나 그의 삶과 사역을 들어본다. • 4면에 계속

### 마음의 눈을 밝히사 (52)

## 성적 타락은 동성애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흔들고, 성적, 도덕적,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도덕적 타락, 즉 인격적 타락의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그만큼 성적 타락의 문제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존재와 짝 붙어 있으며, 성경에서도 인

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남녀관계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쾌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달아 가는 다음 코스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며 생겨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도, 로마서가 기록된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전혀 변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

가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마약이 마약을 부르고 술이 술을 부르듯이 음욕은 음욕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이 안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이니 개인적 성향이니 생리적인 이유니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아무리 여러 말을 해도 동성애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성애라고 할 때에는 음욕이 불일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극단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소수



일러스트=김경선

자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함이 이미 도를 넘어 부끄러움을 자랑하고 심지어 영광

로 삼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는 만만한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영적 음모와 사탄의 교묘하고 악독한 술수가 있습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 12%의 무슬림, 다수 기독교를 박해하는 우간다



제공: WMM

**“아싱에** 바울 교회, 2005년 9월 21일 봉헌” 바닷물처럼 새파란 문과 창문, 그 앞에 수줍게 서 있는 세 명의 아이들 옆에 보이는 교회 명판이 유독 눈에 띈다. 우간다의 기독교 인구는 약 80% 이상(가톨릭 41.9%, 성공회 42%)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12% 정도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의 박해가 최근 가중되고 있다. 특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핍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기독교로 개종한 초등학교 교사는 무슬림에게 납치

되어 모스크로 끌려가 이슬람 학교 동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몸에 불을 붙이는 등의 심한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동료 교사 중 한 명이 죽이지는 말자고 해서 목숨을 구했다. 4월 17일 부활절에는 예배를 드리고 온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실이 발각돼 구타를 당하고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한 20대 여성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배를 드린 직후 무슬림 아버지에게 눈을 찔린 후 살해됐다고 미국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우간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우간다에서는 현재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우간다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이 박해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기도하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텍사스주 외곽 트레일러서 밀입국 이주자 추정 시신 46구 발견**  
 지난달 27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남서부 외곽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46구의 시신과 어린이 포함 생존자 16명이 발견됐다고 A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이주자들로, 이 사건 후 미국 성공회는 미국에 ‘정의로운 망명 시스템’을 요청했다.  
 살길을 찾아나서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돌보아주십시오.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브로커들과, 소망 없는 세상에서 신기루 같은 미래를 더듬어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 해주십시오. 미국의 의회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시스템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미얀마 불교 민족주의 군사정권, 아동 수백 명 고문·살해 범죄 심각**  
 미얀마 불교 민족주의 군사정권(준타이)이 쿠데타 이후 기독교인 등 종교인을 향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특히, 수백 명 아동들을 고문·살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유엔은 매맞고 칼에 찔리고, 담뱃불에 지지되거나, 심문 도중 손톱과 치아가 뽑힌 아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내전이 일어난 미얀마에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과 특히 아동들을 지켜주시고, 흉악한 범죄를 심판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생명 안에서 회복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韓 ‘양성평등’을 ‘성평등’ 바꾸는 법률안… 성윤리, 사회혼란 야기**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오는 용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이 6월 30일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평등은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지는 것이다. 한편 ‘성평등’ 용어 개정 이전에 이미 양성평등 조례들을 통해 페미니즘 교육, 포괄적 성교육, 좌파 이데올로기 사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두 개의 성별을 부정하는 이들의 정책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악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기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국정이 운영되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6일

**7월 18일 ~ 7월 23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7.21(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7.21(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7.21(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7.21(18시)~23(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7.22(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22(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010-6810-2949, 그 외 6교회 진행중.

**7월 25일 ~ 7월 30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7.26(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7.26, 28~30(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7.27(0시)~30(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름다운공동체(정\*\*)010-3697-0641, 7.29(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7.29(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010-6810-2949, 그 외 7교회 진행중.

**8월 1일 ~ 8월 6일** 8.1-6(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8.2~4(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8.4(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8.5(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8.5(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8.5(12시)~6(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8.5-6(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 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시애틀, 거리에서 성경을 낭독한 노방 전도자 체포 돼

시애틀의 한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자 행사장 근처 공원에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체포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자신을 시애틀의 전도자라고 밝힌 매튜 마이네케(Matthew Meinecke)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경을 읽는 동안 시애틀 경찰들에게 둘러싸였고, 이후 체포돼 경찰서에서 지문 채취를 받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그는 “시애틀 경찰은 공원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전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관 10명을 보냈다. 노방 전도는 지금 정말 끔찍한 범죄니까!”라는 글과 함께 체포 당시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경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당신은 지금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곳을 떠나면 위협이 해소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마이네케는 “나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마이네케는 디스커버리 연

구소 저널리스트 조나단 최에게 “시애틀 센터에서 성경을 읽었고, 공격적으로 설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동요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물건을 던지고, 내 물건을 훼손시켰다.”며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를 인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성경말씀에 왜 그토록 화를 내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이네케가 게시한 또 다른 영상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성경을 빼앗아 찢으면서 “여기서 꺼져! 내 난소에서 성수를 빼라. 꺼져!”라고 소리쳤으며, 또 다른 사람은 “당신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늘의 요정은 있어라.”라고 했다. 마이네케는 “우리는 범죄로 가득 찬 도시에 살고 있다. 도처에 무법 상태인 노숙자 지역이 있고 곳곳에 폭력이 있다. 그곳을 안티파(파시스트에 반대하며 극우파에 맞선 극좌파를 가리킴)가 지키고 있지만, 시애틀 경찰은 나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10명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 미국 시애틀 거리에서 성경을 낭독하다 체포된 노방 전도자. 출처: 트위터 계정 / The Seattle Preacher 영상 캡처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정치, 종교적 다양한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성경을 읽는 것이 공공에 위협이 된다면 전도자를 체포하는 것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이해가 불가한 상황이다.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이미 거리 전도자들의 노방 전도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생명의 회개를 하게 되도록 미국 땅을 축복하자. [GNPNEWS]



기획 | 차별금지법 통과된 네덜란드·뉴질랜드에서

#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뉴질랜드 목회자, “동성결혼 합법화 전 기도하며 막지 못한 것, 회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최근 설교시간에 네덜란드 교포 중학생과 뉴질랜드의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네덜란드, 고1 되면 50% 이상 성소수자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Equal Treatment Act)이 통과되어 실행된 나라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도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출처: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저희 학교(중·고등학교 6년 과정)는 중학교 1학년부턴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얘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 중학교 입학 이후 4년이 지난(한국 나이로는 고1)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보라색 옷을 입고 가는 보라색의 금요일(Purple Friday)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았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짙은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

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의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의 몇 명은 중학교 2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봐 걱정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 내어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뉴질랜드, 부모라도 성 정체성 상담하면 감옥 갈 수 있어

저는 뉴질랜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 선생님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1997년에 뉴질랜드에 중학생 때 이민을 와서 현지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와 현지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리고 별 관심이 없었는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해 그렇게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는데, 뉴질랜드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며 또 교사로 일을 하며 정말 인구의 절반은 동성애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직장 동료, 학부모, 이웃들에게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1993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후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동성애 커플들이 뉴질랜드를 차별 없는 땅으로 선포하



출처: Jose Maria Sava on unsplash

며 이민을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나라는 반겼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일하고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성별의 부모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수많은 동성애 커플이 호주 및 다른 나라에 가서든 여기서든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하고, ‘아빠 아빠’가, ‘엄마 엄마’가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학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기에 저학년 학생들을 보며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혼란을 겪을지 심히 걱정되었지만, 직장 동료 역시 수많은 동성애자 커플이기에 침묵으로 그런 관계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관련 책들을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엄마 엄마나 ‘아빠 아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에 회의를 느낀 저는 교사를 사직하였고 고등학교에서 다른 일을 하려 이직을 했습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는 동성애자로 일본인 남자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가 뉴질랜드가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선진 시민의식을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몇몇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1993년 비교적 순탄하게 통과되어 지금까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필립 터너 씨가 말했는데, 그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어떻게 보면 별 관심도 없이 너무 이른 시기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라에선 작년부터 국회에 청원을 통해 동성애 치료 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그 법은 원치 않는데도 동성애에 끌린다거나 성별불쾌감(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을 경험하는 사람이 원하는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것까지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전문 치료 상담가나 교회 목회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저 성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주세요.”하면 이것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부모 역시 자기에 대한 성 정체성 상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도 치료 받고 하면 징역 3년에서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2월 15일 통과되었으며 6개월 뒤인 올해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는 만 9살 난 딸에게 성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타인과의, 제 자녀와도 본인의 성 정체성은 상담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 또한 주님을 믿기에 아이가 동성애가, 성을 바꾸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부터는 교사로 일하며 상담을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목회자분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 합법이 통과될 때 ‘왜 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지 못했나.’ 모여서 회개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비단 목회자분들만이 아니라 저 같은 성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곳의 공교육도 신뢰할 수 없기에 홈스쿨링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부분의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동성애가 찬양되는 나라들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을 남겨두셨을까요? 소망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젠 거꾸로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별거 아니겠지.’ ‘나와 상관없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가 받아들였고 비정상적 이상보다 즐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이주민과 함께 하는 전철한 선교사 (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 1면에 이어  
-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유치원 때 누님을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1학년을 마치고 방학 기간에 결혼한 누님 집에 가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산중파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로마서 1장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됐었죠. 신앙의 전환점이 그때 이뤄졌어요.”

## 신학교 1학년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다

- 그 이후 생활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제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무명한 사람으로 시골에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면서 평생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노동하면서 고아들과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을 봤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제 신앙의 기초를 거기서 주님이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 군대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궁금하네요.  
“훈련을 마치고 카투스(KATUSA, 미 육군에 증강된 한국군)로 배치를 받게 됐어요. 그때는 카투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녔다는 경력으로 중군사병이 되어, 미군부대 포 사령부에 있으면서 예배를 섬기게 됐어요. 중간에 미군이 철수할 때도 마침 미 8군 합장단 멤버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를 다니며 위문 공연을 했기 때문에 카투사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미국 군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영어와 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만 2년 정도 용산에서 있었어요.”  
- 그렇게 하나님이 어학 공부와 공동체 훈련을 시켜주셨군요.  
“친구들 중에 가스펠송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과 주말이면 약속동에 있는 미국 군인들을 위한 선교단체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한 미국 선교

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제대 이후, 그 선교사님의 초대로 선교단체에서 숙식하며 2년 동안 인턴십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 어떻게 선교하는지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교 훈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었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네요.  
“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 친구들이 축하파티를 열어줬어요. 센터에서 간증도 하고 영어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섬기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쪽복음을 제게 보여주면서 인천에 있는 외향선교회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또 그분의 초대로 배에 올랐는데 너무 좋았어요. 배에는 20~30명의 선원이 있었고, 유럽,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

국에 로고스 배가 들어왔을 때, 통역과 번역, 안내하는 일을 제가 맡으면서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24~25개국 사람들이 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한국교회 방문, 학교, 교도소 방문, 거리 전도,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선교가 뭔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78년에 영국에서 열리는 오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60여 명의 팀과 함께 유럽 대륙을 횡단해 이란에서 배를 탔어요.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배에 타면 8시간은 막노동은 해요. 배는 사실 녹과의 전쟁이더군요. 그래서 페인트칠 하고 청소하고 엔진실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나면 ‘내가 왜 이 배를 탔나?’하는 생각도 들죠. 그렇게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게 선교사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 로고스호 사진(위)과 1985년 선교사 파송배(아래 왼쪽), 영국에서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함께(아래 오른쪽). 제공: 전철한 선교사

스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1975년 3월 중순부터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 선교사의 삶을 살다**  
-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삶이 시작된 거군요.  
“영어 쪽복음과 기드온협회에서 나오는 한영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나누고 전도했어요. 배 안에서의 커피타임은 아침 10시 반, 오후 3시 반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 전도를 해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선원들 생일파티도 해줘요. 선물도 준비하고 30~40분 찬송하고,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런 순종을 통해 조금씩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 선교 훈련을 실전에서 하나씩 배워나가신 거네요.  
“그렇게 생활하던 중 1975년에 한

들어가 3년 정도 북한 사역을 했어요. 미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북한의 사정을 알리고 모금한 이후, 수백만 불어치를 북한에 보냈어요. 그리고 북한에 물품들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2000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 북한 사역을 거쳐 이주민 사역으로

- 참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셨네요. 한국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한국이 많이 변했더군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3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9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이들의 필요가 보였고 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외향선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터를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어떤 보장된 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기에 외향선교회를 사임하고 2001년 7월 1일 외국인선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 외국인선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한국외국인선교회’는 영어로 Friends of All Nations(FAN)이에요. 이름에 선교라는 말을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접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이었죠.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외국인들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마침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을 때여서 축구시합을 열어 외국인 근로자들 150명과 축구도 하고 식사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태국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월급을 받아달라고 했죠.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공장에 찾아가

서 사장님께 인사하고 월급을 지급하도록 잘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사장님은 어려워하셨는데, 우리도 수십 번 찾아가면서 결국 월급을 받게 됐어요. 월급을 받게 된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여기 가면 월급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게 됐어요. 태국인들은 한국말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태국어 예배가 생겼어요. 6개월 정도 되니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됐죠. 지금은 공간이 조금 넓어져 예배실, 쉼터, 진료실, 식당 등을 만들고, 5개 언어권 예배 공동체가 생겼어요. 영어,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핀란드어. 그렇게 매주 15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지역 교회와도 연합했는데, 찬양팀도 오고, 식사 봉사, 태권도 팀, 의료진도 오셔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5년 후 공장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 이주민의 월급을 받아주면서 시작된 사역

- 들어오는 입구에 컨테이너가 있던데 그곳에서 각 언어별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나요?  
“이 사역은 한 장소에서 많은 숫자로 진행할 수 없어요. 언어권이 다양해서요.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모든 공간마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감사하게도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인천, 시화공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0개 지부가 생겼어요. 지부들 가운데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을 섬기는 곳도 있어요. 한국 남성과 재혼해서 입국하는 여성들의 자녀를 도와주는 거죠. 이들이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적응이 어려워요.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청주, 인천, 부천, 광주 등에 5군데 있어요.”  
-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네요.  
“지금은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받고 3년간 목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교회를 재생활할 수 있거든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요. 이것이 이주민 사역에는 필수적이예요. 이를 위한 교재도 있는데 40개 언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역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해주신 것 같아요.”  
- 이주민 사역에 교회와의 연합이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줄 몰랐네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교회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한 외국인 형제에게 세례식을 집행하고 있다. 제공: 전철한 선교사

• 5면에 계속



# 마르세이유에서 아랍어 전도책자를 나누며 전도합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는 북부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배가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 여러 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항구에서 성경전달 사역이 재개되었습니다. 전달된 성경은 북부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2대 정도의 배가 북부 아프리카로 가는데, 여름 바캉스 시기에는 매일 3~4대 정도의 배가 출발합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로 가는 무슬림들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각자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24~36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근 무슬림들을 위한 전도책자를 만들고, 불어와 아랍어로 번역 중에 있는데, 이 소책자를 무슬림들이 배에서 읽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국가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군가 또 읽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의 핵심 부분(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무슬림과 논쟁이 됩니다. 이 때

문에 전도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과 논쟁이 되었던 내용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복음을 주제별로 정리한 60페이지 정도의 작은 책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좋고 멋진 도구,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번역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께도 성령충만함을 주시도록, 번역이 빨리 완성이 되도록, 디자인이 잘 나오도록, 제작을 위한 재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거리 전도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3개월 사이에도 알제리와 튀니지의 무슬림들, 또 아프리카의 무슬림 난민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만남은 어렵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내일 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보지만,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진

심으로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는 한 이맘이 우리에게 “왜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냐?”며 욕을 하고 성경책을 빼앗아 땅에 던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맘이 심하게 방해해서 심적으로 부담이 크고 힘들어서 성경을 나눠주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슬림 전도를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무슬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아)는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AD 632년) 가장 먼저 무슬림화된 국가들이고, 지금은 매우 강한 무슬림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북부 아프리카를 식민지



▲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의 거리. 출처: 유튜브 채널 Michael Jiroch 캡처

화한 이후 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은 프랑스의 가장 큰 항구도시인 이곳 마르세이유를 통해 유럽의 많은 국가로 진출했습니다. 마르세이유는 90여 개의 모스크와 무슬림 기도처소가 있고, 100여 개의 코란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 60%가 북부 아프리카 무슬림들입니다.

반면에 마르세이유는 북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북부 아프리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고, 항구에서 성경과 각종 선교 책자를 보내는 등, 북부 아프리카를 위한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95%는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는 기도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기도의 처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GNPNEWS]

마르세이유=최득신·송수연 선교사

• 4면에 이어 Interview

## 이주민들이 온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그래서 교회들에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주민 선교 소식을 기도편지에 담아서 격월로 나눴어요. 한국교회는 물질, 인적, 영적 자원이 다 있는데, 교회를 동원해서 교회가 사역하게 해야 한다고 제가 속한 교단에 이야기를 했어요. 교단에 속한 3000개 교회 중에 1/10만 해도 우리 지부가 사역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주민들이 온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자원봉사하다가 선교의 비전이 생기게 되는데, 교회도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면 반드시 비전이 생기고 선교적 교회가 될 거예요.”

- 혹시 그런 사역과 관련해 말씀 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에 이 사역을 나누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남은 교회가 100명씩 전도하면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가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다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주민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들과 좋은 선교사가 없어요. 이들은 돌아가면 자기 가족에게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나간 사람은 본국에 돌아가서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 수 밖에 없어요. 이곳에 있을 때 심자가의 도를 만나고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 본국에 가서도 그 나라에 파송돼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 교회도 개척할 수가 있어요.”

- 네 그렇군요. 현재 이주민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 선교사들과 후원교회들이 연합하여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선교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에 들



▲ 사할린 공동체와 함께한 가을 소풍. 제공: 전철한 선교사

어와 이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회 하시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현실을 한국교회가 이해한다면 이주민 선교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를 함께 하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목사들이 유학을 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본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세운 사람도 있어요. 또 본국에 나가 지부를 세우기도 해요. 지금은 10개 정도의 해외 지부가 있어요.”  
- 끝으로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이주민들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해요. 이들이 공장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삶

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전도가 되지 전도지로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전도지로는 변화가 없어요. 기숙사를 위해 작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기숙사가 속히 허락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후임자가 와서 사역을 이어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 이어가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자녀가 있는데 선교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번아웃된 첫째 아들이 회복되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둘째 아들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 정말 천국을 믿는가?

영원한 문이 당신을 위해 활짝 열려 있다. 지금 당신의 보잘 것 없는 육체를 보라. 먼지와 재 같은 이 육체가 천국에서는 별보다 더 빛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의(義)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내게 당신의 결심을 보여달라. 세상의 명예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세상의 아침에 귀를 막고, 세상의 마수(魔手)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겠는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 가난과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포기하고 영생을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4)

# 지식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심령에 임하는 천국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다면 작은 사인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으나 소경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신학지식과 종교의식으로 무장했지만 마음 중심에는 주님의 진리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5-27)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

남 나라라는 영적인 나라이므로 육적인 문화나 지식, 세속적 가치로는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심령에 임하는 천국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고전 2:14)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가지 비유 중에 사람의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에 비유한 말씀이 있다. 각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똑같이 뿌려졌는데 결과가 다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을 내고 은혜를 받으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자라긴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염려인 가시나무도 함께 왕성하게 자라기에 그 기운에

막혀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는다. 오직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밖에 없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 중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주어진 복음에 100% 그대로 반응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도록 부드럽게 준비된 옥토 같은 심령이어야만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이다.

이어 가라지 비유가 나온다. 어느 날 가보니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도 자라나는 것이다. 그 때 주인이 원수가 뿌리고 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순전한데 이상한 반응을 하는 가라지들이 하나씩 끼어 있다는 말이다. 복음이 잘 못된 건가? 아니다. 악한 자가 가라지를 군데군데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온전한 곡식이 뽑힐까 한다며 가라지를 뽑지 말고



일러스트=이예원

내버려두라고 한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지만 추수 날에 가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온다. 씨 중에 가장 작아 잘 보이지도 않지만 심겨지면 단숨에 자라서 다른 나무보다 크게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미하고 약해 보이나,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빨리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말씀이다. 마치 거대

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고아 다니엘이 제국 전체를 흔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또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하신다. 누룩은 존재감이 없지만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으면 죄다 부풀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크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2 하반기 헤브론선교대학교  
**학생 모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헤브론선교대학교는 2022년 하반기에 열리는 학교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을 사모하는 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경건훈련학교**  
: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학교

**2. 영어기초학교**  
: 선교에 관심있는 자를 위한 영어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학교

- 모집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교적 삶에 부르심이 있는 분, 공동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개강날짜 : 9월 12일
- 모집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문의전화 : 010-2678-4641, 010-8882-8369
- \*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hufm.or.kr  
유튜브: 헤브론선교대학교  
인스타: @from\_hufm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버거데이**  
HEART MADE **BURGERDAY**

만남과 나눔을 요리하는 **버거데이**  
건강한 샌드위치 주먹밥 과일 단체도시락

☎ 010-2207-2787 | 대구시 수성구 천을로 117

**강원냉동 엔지니어링**

취급품목 각종제빙기, 중대형냉장고, 쇼케이스, 슬러시기계  
출장 A/S 및 신품 중고품 판매

대표이사 이병철 장로  
☎ 033-744-2933 / 010-3856-4802  
✉ gkcm119@naver.com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내 느낌이 어떨든 십자가 복음은 진리이다

뉴스쿨(다음세대 신앙훈련) 3기를 신청한 건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이었다. 얼마 전에 다시 다음세대 복음학교를 다녀왔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서, 뉴스쿨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강의 중에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것이며, 내 느낌이 어떨든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이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어도 내 삶이 180도 달라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뉴스쿨 미션과 말씀묵상도 매일매일 하지 않고 미뤘다가 금요일에 몰아서 한 적도 많다. 학교 수행평가와 숙제에 밀려서 못했던 것도 다 변명이

다. 학교 수행평가와 과제는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해내면서 30분도 안 걸리는 뉴스쿨 미션은 제대로 안하고 미뤄버리는 게 내 모습



일러스트=고은선

이었다. 내가 얼마나 날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인인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돌

아가셨다.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

다. 들었다고 해서 살아지는 게 아니며 나는 뱀속까지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 변화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 1장 8~9절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셨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단 1:8~9)

내가 뜻을 정해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내 느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지 말고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한다. 주님이 하십니다! [GNPNEWS]

오예은(15)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 고난은 하늘 가족 구성원으로 다듬어지는 시간

Q 신실한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A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 고통 속에 장시간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의심할 지경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겪는 고통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결정하고 세상을 기웃거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해 회개할 참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 때문에 잃은 고통, 육체적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고통, 고난, 질병, 사고, 이별 등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과정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정말 하늘 가족 구성원으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실 때도 마음 아프셨지만, 우리에게 주실 유익 때문에 허락하시는 우리의 현재 고통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GNPNEWS]

## 부흥을 위하여

# 황해북도, 장마철 폭우 피해 속출... 살림집 4세대 무너지기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과 이곳을 탈출한 탈북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통일선교를 소개하며 소개한다. <편집자>

황해북도에서 최근 장마철 폭우로 6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일부 농경지들이 파괴되는 동시에 살림집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고 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은파군 일부 지역은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강하천 인근의 수십 세대가 밤새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해 긴급 대피소동이 벌어졌다. 아울러 곡산군에서는 일부 세대가 돌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폭우로 살림집 벽체가 쫓리거나 무너졌으며, 특히 토피(土皮)로 벽체를 세운 살림집 4세대가 무너지면서 5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식통은 “살림집들이 워낙 낡은 데다 토피로 지어 피해가 났다.”면서 “정부의 지시로 물길

제방 공사를 비롯해 각종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웠지만, 공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데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위해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모태가 될 ‘탈북민 교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탈북민 교회’는 담임목사가 북한 출신이거나, 남한 출신 목회자가 탈북민 사역을 주 목표로 개척된 교회, 성도 대부분이 탈북민인 교회를 통칭한다. 이러한 탈북민 교회의 주요 모토 중 하나는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모태가 될’ 혹은 모델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을 통해 북한선교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난 6월 11일 서울 남산교회에서 열

린 기독교통일포럼에서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가 밝혔다.

정 목사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북한선교뿐 아니라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그리고 열방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북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세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탈북민 교회의 존재 의의는 북한에 세워질 교회에 있다.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남한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탈북민 교회”라고 설명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1990년

으로 장마가 멎지 않으면 큰 물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은파군과 곡산군에서는

군당과 군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큰물 피해 파악에 나선 상태”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GNPNEWS]

## 탈북민 교회, 전국 82곳... 북한선교와 복음통일 중심점 돼야



▲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장마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NORTH KOREA NOW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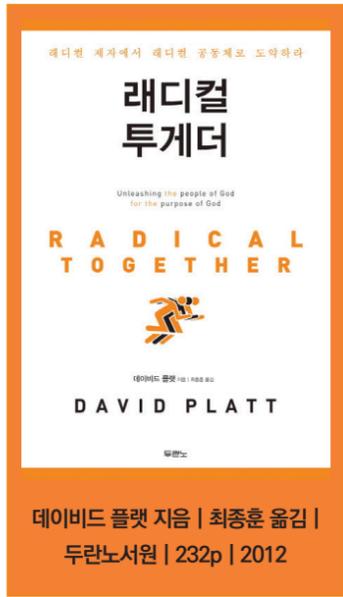
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국내 3만여 탈북민들 중 40%에 달하는 탈북민 복음화를 이뤄냈다. 200명 가까운 탈북 신학생·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전국에 80곳 이상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코로나19 속 지난 3년간 탈북민 교회 수는 20% 이상 증가했고, 내부 상황도 79%의 교회가 출석 성도가 늘어나는 등 안정을 찾는 추세다. 2022년 5월 말 현재 탈북민 교회 개척은 전국에서 82곳 이뤄졌다. 현재는 82곳 중 14곳이 사라져

68곳이 최북단 연천에서 제주도까지 남한 땅 전역에 자리 잡고 있다. 정형신 목사는 “탈북민 교회는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분명한 열매이고, 현장이며, 실제이자, 통일 준비의 길잡이”라며 “이제 저 멀리 있는 북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과, 이들이 모여 남북의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는 탈북민 교회로 북한선교와 통일 준비의 시선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데이비드 플랫 <래디컬 투게더>

#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님의 명령은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성경의 명령 그대로를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고 싶다. 또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위기가 기회인 것 같다. 그렇게 펼쳐진 책 '래디컬 투게더'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강력한 도전을 준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증거와 함께 말이다.

### 교회여, 좋은(good) 일들을 포기하고 최선(best)의 일을 하라!!

저자가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특정한 프로그램과 모임들, 이에 필요한 예산들이 하나님의 최선(best)인 지상대명의 가장 원대한 비전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냉정히 살펴보고 조정했다. 아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거나 함께 어울려 농구 시합을 하는 것 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것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합되도록 과감히 포기하고 조정하였다. 그 결과 교회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줄이고, 해외 여러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 성도들이여, 급진적인 삶을 살라!

교회 성도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 신화를 포기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 고급 주택가에 살던 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을 팔고 빈민가로 이사했다. 또 어떤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온 신경을 쏟으며 살아온 언더리닝 삶을 멈추며 텔레비전, 아이폰, 승용차 등을 팔고 한 아이를 입양한 가정도 있다. 어느 날은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가운데 160가정이 새 식구를 맞이하는 일(입양)도 있었다. 이외에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소유와 존재 전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를

토대로 한 다양한 방법의 순종을 이어가고 있다.

### 이웃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붙든 저자는 그 지역사회에 넘쳐나는 직장인들을 타깃 삼아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열방의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을 교회 건물로 불러들여 건물 안에서의 한정된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양한 방법, 이해와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제자가 되도록 하였다. 성도들의 집이 세계 선교의 베이스캠프인 셈이다. 그들 안에서 저마다 팀을 이루어 선교 여행을 가거나 어떤 경우는 직접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책을 덮으며, 자기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교회를 상상해본다.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수백만이고 수많은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게 된 이 때에, '예수교회로 회복되어야 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울려온다. 이른바 교회라는 주님의 선물을 희석시키거나 이제 더 이상 잃어버려선 안 되겠다.

###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기준으로 삼는 예수교회로 회복하라!

엄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예수교회로 회복시키기만 한다면!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선교가 완성되는 그 날은 바로 눈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GNPNEWS]

양동원 선교사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서 성취하실 수많은 약속도 있지만, 교회와 세상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줄 순종해야 할 명령들 또한 가득 차 있다. 어느 날인가 약속과 명령이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간절히 붙들고 외치지만 내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하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포탄 소리 속에서 찬양 소리가 들린다

포탄 소리와 총소리가 들린다. 카렌군과 미얀마군의 전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들리는 소리가 있다. 유치원 아이들의 찬양 소리이다. 2022년 6월 26일 '티씨래'에서 피신 나온 카렌 실랑민 공동체 예배 중에 들리는 소리이다. 포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번갈아 들린다.

그날 새벽 6시에 그곳을 섬기는 '무무에' 목회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전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침 5시경부터 마을 주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숙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서 밖에 나가서 국경 방향으로 향했다. 귀를 기울이니 총소리와 포탄 소리가 들린다. 카렌군과 미얀마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일정을 당겨서 급하게 티씨래에서 피신한 공동체로 향했다. 그곳에는 20명의 유치원생과 3명의 교사, 그리고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무무에 목회자가 있다. 20명의 유치원생 가운데 8명은 고아

이다. 나머지도 편부모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들에게 포격 소리와 총소리는 실제적이다. 단지 큰 소리가 아니다. 인명 피해가 나온다. 이미 경험을 한 소리이다. 보름 전에 그곳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친구의 아버지가 전사하였다. 여덟 살, 여섯 살, 네 살, 그리고 이제 한 달 된 아이를 낳두고 아버지는 떠나갔다. 남은 가족은 안전지대로 이동되었다. 어린 나이에 깊은 트라우마가 드리운 것이다. 포탄 소리와 총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이다.

무무에 목회자의 마음은 녹아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300여 명의 학생들과 22명의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그녀에게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녀의 막내 아들도 그 가운데 있다. 그 지역은 봉쇄가 되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었다. 학교도 문을 닫았다. 다행히 그 마을에서 사상자는 없었다. 유탄은 날아왔지만 다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나를 돌아본다. 나의 설교가 이들에게 어떤



▲ 카렌족 어린이들. 제공: 오영철 선교사

의미가 있는가? 다투 왕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포탄 소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보다 포탄 소리로 인한 메시지가 훨씬 클 것 같다. 나의 한계를 느끼지만 한편으로 이들에게 이번 방문 자체가 적지 않은 격려가 되었던 것 같다. 연약한 공동체에 잠시나마 함께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자세를 통하여 확인한다.

또 한 가지는 무무에 목회자로부터의 계속되는 소식이다. 왜 나에게 그곳의 상황을 소상히 알릴까 생각한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그녀가 외부에 그곳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것이다. 나로서는 큰 부담이고 감사 제목이다.

내가 애써서 생각하는 것은 포탄

소리를 넘은 찬양 소리이다. 깊은 트라우마를 간직한 고아들의 찬양 소리는 세상에 미미하기 짝이 없다.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란 참 묘하고 신기하다.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미래의 전투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찬양하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은 맑다. 그 순간만큼은 찬양 소리에 포탄 소리가 묻힌 느낌이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고아들의 찬양 소리가 미안만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작은 소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이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뿌려지고 자란다. [GNPNEWS]

오영철 선교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2. 6. 16 ~ 7. 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혜령 김경선 김광희 김대혁 김사희 김숙자 김애심 김영순 김유남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민숙 박성규 신현경 안민자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삼연 이영욱 이주선 이주선 이진희 조명숙 조은일 조형광 차상복 차익수 무명

**교회 및 단체**  
 CGT GNA 감서침례교회 목자교회 김화제일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쉼시흥교회 신한테크 은혜신일교회 영원간병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양광교회 열매교회 처음사랑교회 오예그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춘천중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